

## 비즈 프리즘 | 롯데 vs 호텔신라 vs 신세계... '면세점 삼국지' 향후 전망

# 면세점 3강 대전... 선두 교체냐? 승자의 저주냐?

신세계, 9000억원대 사업권 싸움이 선두권 롯데·호텔신라 바짝 추격 11월 오픈 현대백, 판도 변화 주목

최근 몇 년째 유통공룡들의 치열한 격전이 벌어지고 있는 면세점업계 판도가 급변했다. 30여년간 이어져 온 롯데-호텔신라의 양강 체제가 지난주를 기점으로 사실상 깨졌다.

대표적인 재벌2세 여성경영인,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과 이부진 호텔신라 대표의 격돌로 관심을 끌었던 인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 사업권은 22일 신세계로 결정됐다. 신세계가 이번에 확보한 제1터미널 면세점 매출은 연간 9000억원대에 이른다. 지난해 국내면세점 전체매출 14조원의 6.4%가 넘는 규모다.

인천공항의 사업권을 따내면서 면세점 시장 점유율은 롯데(35%), 호텔신라

(29.6%), 신세계(19%)로 바뀌었다. 신세계의 경우 7월 서울 반포 센트럴에 문을 여는 강남점을 포함하면 22%까지 올라간다. 2위 호텔신라가 추격 가시권이고, 더 나아가 업계 선두를 꿈꾸는 '빅픽처'까지 구상할 수 있다.

업계의 절대강자에서 이제는 치열한 추격을 받는 '불안한 1위'로 상황이 바뀐 롯데가 옛 영화를 찾기 위해 분주해졌다. 면세점 제도가 바뀌면서 특혜기간 만료시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1회 갱신이 허용되어 사업권을 새로 따낼 기회가 당분간 없다. 따라서 현재 갖고 있는 시내면세점의 영업에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마침 공공 열어 붙었던 중국방한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어 이들을 집중 공략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해외 면세점 확보에 적극적이다. 롯데는 현재 일본 긴자와 간사이공항, 미국 괌공항, 인도네시아 자카르타공항과 시나이, 태국 방콕 시나이, 베트남 다낭공항 등에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고

이달 중 베트남 나트랑공항점이 문을 연다. 롯데는 대만 타이완안공항 면세점 입찰 참여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진출에 적극적인 것은 신라도 마찬가지다. 싱가포르 창이공항을 비롯해 마카오, 홍콩 공항과 태국 푸켓 시나이, 일본 도쿄 시나이 등 5개의 해외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역시 타이완안공항 입찰 참여 등 신세계의 추격을 따돌릴 과감한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 ●현대백화점 서울 삼성동 황금상권에 11월 면세점 오픈

하지만 업계 일부에서는 이렇게 선두를 바짝 긴장시키는 신세계의 공격 행보가 오히려 '승자의 저주'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신세계는 이번에 인천공항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신라보다 675억원이나 더 제시했다. 당장 7월부터 1년 동안 3370억 원을 임대료로 내야한다. 전체 매출에서 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47%나 된다. 고객 구매력이 높은 대한항공 등 4개 항공사가 제2터미널로 옮긴 상황에서 앞으로 예정만큼 매출이 나올지도 불투명하다. 신세계 이전에 사업권을 갖고 있던 업계1위 롯데가 발을 뺀 것도 줄어드는 매출에 비해 과도한 임대료 부담 때문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하반기 시장에 등장하는 현대백화점의 존재도 관심거리다. 현대백화점은 2016년 말 시내면세점 특허권을 따냈는데, 11월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점에 면세점을 오픈한다. 무역센터점 8층부터 10층까지 1만909㎡ 규모다. 지난해 말 개장하려다가 중국 사드보복으로 인한 방한시장 위축으로 1년 늦었다. 롯데, 신세계와 함께 백화점, 아울렛을 두루 갖춘 유통전문기업이고, 위치가 서울 강남 황금상권이어서 3강 체제를 비롯한 면세점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관심거리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 한눈으로 보는 주간 경제 18일~22일

코스피지수	2357.22	↓	-19.02
코스닥지수	830.27	↓	-9.96
일 낮케이 지수	2만2516.83	↓	-163.5
중상하이 종합	2889.76	↓	-132.14
국고채 금리 (3년물, 연%)	2.147	↓	-0.033
환율 (원·달러)	1112.50	↑	+7.8
국내금값 (원/그램)	4만5229.56	↓	-216.77

지수는 22일 증가, 등락은 주간 집계.



## LG전자, '아프로핑크'와 파트너십 미국 음악 애호가 겨냥 마케팅 강화

LG전자가 미국에서 음악 애호가를 겨냥한 오디오 마케팅에 나선다. LG전자는 음악 분야 통합 미디어 업체 아프로핑크와 파트너십을 맺고 뉴욕과 시카고 등 주요 도시에서 열리는 음악축제에 참여해 프리미엄 오디오 체험 기회를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앞서 21일(현지시간)에는 뉴욕에 있는 내셔널소터스트에서 미디어 등을 대상으로 포터블 스피커 'PK 시리즈'의 체험 행사(사진)를 열었다. PK 시리즈는 LG전자의 독자적 오디오 기술에 영국 하이엔드 오디오 브랜드 메리디안의 신호처리와 튜닝 기술을 더해 최적인 사운드를 구현한 제품이다. LG전자 북미지역대표 조주완 부사장은 "명품 사운드와 휴대성을 겸비한 포터블 스피커를 제대로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 확대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명근 기자



## "역시 최강" ...아시안게임 금사냥 본격 행보나선 LOL·스타2

동아시아 예선 1위 본선 진출 확정 클래식 로얄, 하스스톤 등 본선 실패

대한민국 '리그 오브 레전드'(LoL)·스타크래프트2' 프로게이머들이 아시안게임 금사냥의 첫발을 내딛었다.

한국e스포츠협회에 따르면 6일부터 20일까지 열린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시범종목 e스포츠 동아시아 지역예선에서 대한민국 대표팀은 LoL과 스타크래프트2의 본선 진출을 확정했다. 선수들은 8월 열리는 아시안게임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첫 e스포츠 국가대표로 참가하기 위한 담금질에 나선다. 두 종목 모두 한국이 세계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어 우승 확률이 높다.

LoL은 8일부터 10일까지 홍콩에서 열



아시안게임 동아시아 지역 예선을 통과한 대한민국 'LoL' 대표팀. 왼쪽부터 김기인, 한양호, 곽동빈, 이상혁(페이커), 박재혁, 조용인. 사진제공 | 한국e스포츠협회

린 지역예선에서 나란히 8승2패를 기록한 한국과 대만, 중국이 본선행 티켓을 따냈다. 한국은 3차 동돌에 따른 순위 결정전에서도 중국과 대만을 물리치며 동아시아 1위로 기본 종제 첫 아시안게임 무대를 밟을 수 있게 됐다.

한국은 7번의 롤드컵 중 5번을 우승한 강자로, 이번 아시안게임 금메달 1순위 후

보다. 특히 SK텔레콤T1의 롤드컵 3회 우승을 견인한 '페이커' 이상혁의 출전으로 전세계 팬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스타크래프트2도 대한민국의 강세가 예상되는 종목이다. 13일과 14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지역 예선에서 한국의 조성주는 5전 전승을 거두며 1위로 본선에 진출했다. 조성주는 최근 국내 리그인 '2018 GSL 시즌2 코드S'에서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린 강자다. 2018년 상반기에만 WESG를 포함해 3번 결승 무대에 오르는 등 최근 몰온 실력을 과시하고 있어 우승을 기대해 볼 만하다.

한편 한국은 그 외 종목인 '클래식 로얄'과 'PES 2018', '하스스톤', '아레나 오브 발러' 종목에선 본선 진출에 실패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나일론, 체크패턴 신상 여기 있어요." 삼성물산패션부문 준지가 2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팔레 드 도쿄에서 '2019년 봄·여름 시즌 컬렉션'을 공개했다. '대안'을 주제로 오렌지 등 밝은 색상에 나일론(비닐) 소재를 적용하고 과감한 체크와 줄무늬를 활용한 제품을 선보였다. 또 스니커즈, 모자 등 액세서리 제품군을 강화했다. 정영욱 기자, 사진제공 | 삼성물산패션부문

## 교육·퍼즐

### 에듀윌

70대에도 소장 직함으로 일할 수 있는 직업은?

### 강주현의 퍼즐월드

WWW.경품광고퀴즈.kr WWW.매직스도쿠.kr

## 정년 없는 '주택관리사' 내년까지 합격해야 하는 이유

100세 시대를 넘어 120세 시대가 도래한다는데 살면서 최소 3~4개의 직장은 거쳐야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이 와중에 70대에도 소장 직함으로 사무직으로 일할 수 있는 직업이 있어 화제다. 정년 채우기도 힘든 시대에 60대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직업이라는 것.

제2의 인생이 화두가 되면서 공무원 시험이나 공인중개사 시험 등 직장인들도 각종 공부부를 시작하고 있다. 그중 주택관리사도 유망 자격증 중 하나다. 알만한 사람들은 퇴직 몇 년 전부터 '주택관리사' 시험을 준비한다.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파트 관리소장 채용에서는 주민들과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중시하기 때문에 사회 경력이 있는 중년층을 가장 선호한다. 주택관리사는 60대 이후에도 소장 직함으로 일할 수 있는 놓치지 아까운 전문 직종이다. 또한 최근에는 젊은 층으로 응시 계층이 낮아졌다.

### 에듀윌 주택관리사



다양한 장점이 많은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바로 취업하려는 똑똑한 취업생들도 생겨나고 있다. 주택관리사 시험은 2020년부터 상대평가로 전환된다.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할 수 있는 '절대평가' 체제로 합격할 수 있는 기회는 단 두 번 뿐이다. 2018년과 2019년. 올해 시험은 곧 앞두고 있기 때문에 주택관리사 합격을 노린다면 2019년까지는 합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를 위해 에듀윌은 주택관리사 합격을 위한 다양한 커리큘럼을 운영 중이다. 전국에 위치한 오프라인 학원부터 온라인 강이나 교재 출간 등을 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에듀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이수진 기자 sujini22@donga.com

1~9까지의 숫자를 사용해 가로, 세로, 대각선 방향은 물론 작은 정사각형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골고루 들어가도록 해 보세요.

### ■ 스도쿠문제

6	5			1	2			
			8	2	4			
2			5	1				9
	6	2				4	5	
	4						2	
	5	7				3	1	
3			4	5				1
			3	7	6			
4	8				5			3

### ■ 스도쿠정답

8	9	6	1	2	8	7	4	5
4	8	7	9	5	3	6	2	1
1	6	3	4	8	7	5	9	2
9	1	3	2	4	7	8	6	5
2	8	5	6	9	8	4	1	3
8	4	5	2	1	3	7	6	9
6	7	8	1	9	4	5	2	3
5	9	1	8	2	4	6	3	7
1	4	2	9	3	6	7	8	5
7	5	9	6	3	1	2	8	4
4	8	6	2	7	9	3	5	1
8	2	9	4	7	5	1	6	3
6	9	1	8	7	5	2	4	3
3	4	7	2	9	1	6	8	5
2	9	6	3	8	7	4	1	5
9	6	8	3	9	4	1	2	7
1	2	4	7	8	9	5	6	3
7	5	9	1	6	2	4	8	3